

글. 김석환_ Kim, Seok-hwan, KIRA

터 · 올 건축사사무소

양동마을 답사를 마치고...

Epilogue of Exploration of Yangdong Village

지난 11월 16일 서울건축사 건축답사 및 사진 동호회(회장 김선양) 행사로 영동마을을 다녀왔다. 2012년 12월 발족한 이 회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전국 각지의 전통건축 답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건축 전문가인 회원들이 함께 소중한 건축문화 유산을 돌아보며 그 가치를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왔다.

이번 답사지는 지난 10월 수원화성 답사 때 필자가 추천하였는데 금번 나의 저서 「한국전통건축의 좋은느낌」의 개정판 출판을 계기로 현장 설명을 맡기로 하여 적절한 답사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답사도 다녀왔었다.



그림 1. 입구에서 바라본 양동마을 전경



그림 2. 수졸당에서 바라본 마을 안쪽 풍경

서울로부터 거리가 멀어 새벽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 7시 교대역을 출발하여 11시 20분 양동마을에 도착한 다음 먼저 식사를 하고 12시 30분부터 답사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전국적으로 안개가 짙게 끼었으나 점차 맑아져서 양동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맑게 개어 있었다. 연잎에 오곡찰밥을 싸서 지은 윤기 번지르한 밥과 된장찌개, 메론 장아찌와 맛깔스런 김치, 깍두기 등으로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난 후라 더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다.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에 위치하는 양동마을은 산업사회 이후 개발과 상업화로 우리 고유의 전통마을의 모습이 급속히 사라져온 상황에서 격조 높은 역사 문화의 체취가 오랜 세월동안 변함없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어 ‘진정한’ 전통마을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 7월 31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문화 유산은 진정성과 완전성, 희소성의 가치를 두루 인정받아야 하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위원회는 이 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한 이유로 “생산영역, 생활 영역, 의식 영역으로 구성되는 한국 씨족마을의 전통적인 공간 구성을 기능적이고 경관적으로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매우 드문 사례이고, 조선 시대의 가장 시기가 이르고 뛰어난 살림집, 정사, 정자 등의 건축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며,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고문헌과 예술 작품을 보관하고, 전통적인 가정의례와 특징적인 마을 행사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양동마을의 입향조는 조선 초기 이곳에 정착한 양민공 손소(1433~1484)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훨씬 위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 볼 수 있다. 이 마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정확한 문헌기록은 없으나 마을의 안산인 성주산 정상 구릉지에 청동기 시대 묘제의 하나인 석관묘가 100여 기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원전(BC 4C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웃 마을인 안계리에 고분군(古墳群)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미 삼국시대인 4~5세기경에 상당한 세력을 가진 족장 급에 속하는 유력자가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고려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는 오씨(吳氏), 아산 장씨(牙山蔣氏)가 작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월성 손씨 4대손인 손사성의 차자인 양민공 손소는 처음 풍덕 유씨 만호 유복하의 상속자로 이 부락에 입향하여 현재의 월성 손씨 종가인 서백당을 신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풍덕 유씨의 후손이 한 사람도 살지 않으므로 월성 손씨 문중에서 외손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광호의 재종증손(再從曾孫)으로 성종의 총애를 받던 성균생원 찬성공(贊成公) 이변(李蕃)이 손소의 7남매 가운데 장녀와 결혼하여 영일(迎日)에서 이곳으로 옮겨와서 살고, 이들의 맏아들이자 동방5현의 한 분인 문원공 회재 이언적(文元公 晦齋 李彦迪 1491~1553) 선생이 배출되면서 손씨, 이씨 두 씨족에 의해 오늘과 같은 양동마을이 형성되었다.

양동마을은 8·15해방 직후까지도 양반집마다 가랍집·하배집으로 불리던 노비집이 평균 한 집 반씩 딸려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헐려 나가 밭이 되었다. 이곳 마을주민들에게는 아직도 유교사상이 짙게 남아 있어 매년 4, 10월에 선조를 제향(祭享)하는 의식을 마을 공동으로 거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양동마을이 500년 동안 발전해 온 데는 풍수지리상의 길지(吉地)로 꼽히는 특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우선 그 요인으로 꼽는 것이 마을의 독특한 지형과 마을 앞을 흐르는 안락천의 형국이다.

양동마을 산세의 특징은 마을 전체의 형국이 물(勿)자를 이루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마을은 그 글자의 형상대로 크게 하나로 감싸는 획 안에 3개의 작은 능선이 가지를 뻗쳐 여러 갈래의 능선과 봉우리들에 의해 조망이 빼어나고 양지바른 터를 다수 형

성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아기자기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띤다.



그림 3. 양동마을의 기반인 안강평야



그림 4. 양동마을 지형분석도

양동마을은 남촌 북촌, 하촌, 상촌으로 구분된다. 북촌에는 관가정, 향단, 무침당, 영귀정, 설천정사, 대성헌, 무침당, 수졸당, 경산서당, 낙선당, 서백당, 사호정, 상춘당, 근암고택 등이 자리잡고 있고 남촌은 양동천 남쪽 지형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구역에는 안락정, 이향정, 강학당, 심수정, 두곡고택, 동호정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마을 내 입지에 따라 물봉골, 안골, 갈곡(갈구덕), 거림, 장터골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양동마을의 길지 조건으로 이 마을을 감싸며 흐르는 물의 흐름을 꼽는데, 이 곳은 경주에서 포항으로 흐르는 형산강의 중류 지점으로서 양동마을 앞을 지나는 안락천(기계천)이 합류되는 합수지점이다. 풍수에서는 이처럼 물길이 만나 합쳐지는 곳을 좋은 길지로 여기는데, 안락천은 형산강의 물길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형산강 물이 차면 역수의 흐름을 이루게 된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역수의 흐름을 끊임없이 부가 쌓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날 일행은 관가정을 시작으로 향단, 대성현, 설천정사 영귀정, 경산 서당 서백당, 상춘한, 근암고택, 수졸당, 동호정, 두곡고택, 심수정, 강학당, 이향정, 안락정 등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그 가옥들은 종가와 파종가 그리고 경주손씨가문과 여강이씨 가문의 주요 인물들이 살았던 가옥들로서 양동마을 내에서 가장 격이 높고 사료적 가치가 높은 곳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보물로 지정된 무침당, 관가정, 향단과 중요민속자료 23호로 지정된 서백당은 가장 연대가 오래된 전통 가옥들로 그 시대 건축술과 가옥구조에 반영된 시대상을 고스란히 간직해 오고 있다.

이 마을에서 연대가 가장 오래된 서백당은 필자가 양반가옥의 원형으로 생각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 가옥인데 ‘ㄱ’ 자형 가옥의 한 몸채에서 열린 방향만을 달리하며 안채, 사랑채의 기능과 영역성을 갖추고 있는 점을 의미 있게 여기고 있다. 이 집



그림 5. 서백당 사랑채 측면



그림 6. 관가정 전면 전경

은 설창산의 주맥이 흐르는 명당으로 집터를 잡아준 풍수가 장차 3명의 현자가 태어난다고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손중돈과 회재 이언적이 태어나고 한 명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손씨 종택인 이 집에서 회재가 태어난 이후 양동마을에서 이씨의 세(勢)가 더 커지게 되자 손씨 가문이 엄명을 내려 앞으로 여기서 더 이상 이씨 자손은 낳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농사 짓는 풍경을 보는 정자’란 뜻이 담겨 있는 관가정(觀稼亭)은 손소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양동마을 손씨 가문의 명맥을 지킨 우제 손중돈(1463~1529)이 세운 집인데, 안채의 ‘ㄱ’ 자형 평면 구조를 바탕으로 전면 부분이 좌우로 날개를 뻗치며 확장된 모습을 띠고 있다. 이 집은 정확한 좌우 대칭으로 규범성을 갖추면



그림 7. 향단 전경



그림 8. 무침당 사랑채 전경

서도 서쪽의 사랑채는 기단을 안으로 들여 쌓아 루 형태로 보이게 하는 등 그 쓰임 성격에 따라 세심하게 고려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李蕃)이 서백당으로부터 독립해 지은 무침당은 물봉골을 감싸는 능선에서 안대인 성주봉이 가장 훤히 바라보이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기존의 안채에 사랑채를 별도로 증축하면서 위세가 오른 이씨 가문 종택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듯 규모와 가옥의 격을 갖춘 집으로서 안채와 사랑채 사이로 오르는 높은 터에 사당을 반듯하게 갖춰 놓았다.

향단은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1491~1553) 선생이 1543년경에 경상감사로 부임할 때 중종 임금이 그의 모친의 병환을 돌볼 수 있도록 지어 준 것이다. 한국 전통 건축 가운데 계획적 의



그림 9. 심수정 전경



그림 10. 안락정 전경

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집으로 그러한 감각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 사용자의 신분과 성별에 따른 채의 배열과 각각의 건물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동선, 그리고 채와 채 사이에 놓인 외부 공간과 지형의 높낮이에 의해 형성된 공간의 변화 및 밝고 어두움의 차이에 의해 표출된다.

그리고 강학당 등 교육기관과 생활사가 깃든 정자들은 그 시대 유교와 선비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마을에는 손씨 가문에 속하는 안락정과 이씨 가문에 속하는 강학당 및 설천정사 등의 강학 시설이 있는데 몇 해 전 일본 NHK 방송에서는 이 마을의 번성이 교육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교육 시설들을 집중 취재한 바 있다. 양동마을 손씨와 이씨 양가문에서 문과 26명, 무과 14명, 사미 76명 등 과거에 급제한 분만 모두 116명이나 되는데 현대에도 수많은 고위 공직자와 교수 등의 인물을 배출하여 높은 긍지를 갖고 있다.

또한 이 마을에는 손씨 가문에 속한 수운정과 이씨 가문에 속한 영귀정, 심수정 등의 정자가 있는데 그러한 정자 등에는 자연을 관조하며 심신을 수양하던 선비들의 체취가 서려 있다. 앞으로도 이 마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역사의 쉼이 쌓이고 전통마을의 향기와 가치도 더욱 높아갈 것이다. 이번 양동마을 답사는 그처럼 의미 깊은 전통 마을을 회원들과 함께 돌아보며 친분을 나누는 뜻깊고 즐거운 행사였다. ㉠